



건강보험 급여 항목별 보장률 비교

김미화 연구원

- 우리나라의 항목별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우 의약품은 OECD 국가 평균에 근접하는 반면 입원과 외래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 급여 항목별로 취약한 부분의 보장률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정부가 시행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가 외래와 입원의 보장수준 강화로 나타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최근 OECD는 회원국의 건강보험 보장영역과 본인부담 요건을 비교분석한 보고서¹⁾를 발표하였음.
 - 보고서는 OECD 국가의 급여 항목별 본인부담 수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전체 건강보험 보장수준 논의에서 더 나아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별 보장수준을 평가하고 있음.

- OECD 국가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전국민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보장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나 본인부담 정도는 국가별로 상이함.
 - 보장하는 급여별로 살펴보면 많은 국가들이 급성 입원치료, 외래진료, 영상의학 및 임상검사실 테스트를 기본 보장패키지에 포함시키고 있음.
 - 1차 진료의 경우 회원국의 절반 정도에서는 환자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전문의 외래진료 및 급성 입원치료의 경우 회원국 중 1/3 정도만 기본적인 의료 보장에서 지불하고 있음.
 - 의약품은 입원치료 기간 동안에는 기본적인 의료 보장에서 지불하지만, 외래 약 처방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액제²⁾ 형식으로 본인부담분을 설정하고 있음.

1) OECD(2016.5), "Health care coverage in OECD countries in 2012", OECD Health Working Papers.

2) 정액제(co-payment)란 의료이용자가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담하는 형식임. 정액제와 달리 의료이용자가 의료서비스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정률제(co-insurance)는 우리나라, 독일,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그리스, 헝가리,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음.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는 정률제와 정액제를 혼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안경, 치과치료는 OECD 국가의 기본 보장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나 본인부담분이 높게 설정됨.

〈표 1〉 OECD 국가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별 보장률¹⁾

(단위: %)

입원		외래		의약품		보조서비스 ²⁾		치과치료	
아이슬란드	99	에스토니아	94	룩셈부르크	82	체코	100	일본	77
네덜란드	99	덴마크	92	네덜란드	76	덴마크	100	체코	58
노르웨이	99	캐나다	87	일본	72	슬로바키아	100	슬로베니아	51
폴란드	96	체코	87	스위스	69	스웨덴	100	슬로바키아	50
체코	95	핀란드	84	오스트리아	68	룩셈부르크	96	벨기에	49
에스토니아	95	일본	84	프랑스	68	캐나다	94	룩셈부르크	49
슬로바키아	95	뉴질랜드	84	스페인	68	에스토니아	93	오스트리아	48
스페인	93	스웨덴	84	슬로바키아	67	호주	92	핀란드	41
스웨덴	93	노르웨이	82	그리스	66	노르웨이	92	에스토니아	39
캐나다	92	호주	81	뉴질랜드	66	스페인	92	스웨덴	38
덴마크	92	아이슬란드	80	체코	64	벨기에	91	프랑스	35
프랑스	92	룩셈부르크	80	OECD평균	58	헝가리	90	뉴질랜드	35
일본	92	네덜란드	80	벨기에	57	슬로베니아	86	헝가리	34
핀란드	91	슬로바키아	80	핀란드	56	OECD평균	85	OECD평균	33
오스트리아	90	벨기에	78	한국	56	아이슬란드	83	폴란드	32
룩셈부르크	90	OECD평균	78	스웨덴	56	오스트리아	80	호주	28
헝가리	89	오스트리아	76	노르웨이	54	뉴질랜드	80	노르웨이	27
OECD평균	89	슬로베니아	75	호주	50	프랑스	73	덴마크	18
슬로베니아	88	스페인	74	슬로베니아	50	폴란드	65	한국	16
뉴질랜드	85	프랑스	73	에스토니아	49	한국	61	아이슬란드	15
벨기에	84	폴란드	73	덴마크	47	그리스	58	네덜란드	13
스위스	81	스위스	65	헝가리	41	핀란드	52	스위스	7
그리스	78	한국	62	아이슬란드	41			캐나다	6
호주	71	헝가리	58	캐나다	36			스페인	1
한국	55	그리스	55	폴란드	33				

주: 1) 2012년 기준 자료임.

2) 보조서비스는 임상검사서비스 및 영상진단을 의미함.

자료: OECD(2016)에서 저자 수정 작성함.

- OECD 국가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별 보장률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보장률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에 속함.

음.

- 입원과 외래, 보조서비스의 공공재원 비율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보장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입원에서의 OECD 국가 평균 공공재원비율은 89%인 반면 우리나라는 55%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외래와 보조서비스 역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16%p 이상 낮음.
- 우리나라의 입원과 외래의 보장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 반해, 의약품은 보장수준이 OECD 국가 평균에 근접할 정도로 높은 수준임.
 - 의약품의 경우 본인부담분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편이고 자가 소비(self-consumption)의 가능성으로 인해 보장률이 특히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 급여 항목별로 취약한 부분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함.

-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인 72.9%에 크게 못 미치는 55.6%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³⁾
- 특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급여 항목별로 보장 수준을 살펴, 입원과 외래의 보장률을 보다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최근 정부가 시행 중인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가 외래와 입원의 보장 수준 강화로 나타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kiri](#)

3) OECD Health Statistics 2016.